

2021 새해 새 설계

유두석 장성군수

“새로운 가치 창출로 더 강하고 더 행복한 장성 구축”



“새해에는 소규모 점포와 중소규모 농업을 활성화해 지역경제를 살리고, 기존 가치 극대화를 통한 새로운 가치 창출로 ‘더 강한 장성, 더 행복한 장성’을 만들겠습니다.”

유두석 장성군수는 14일 “장성군민은 지난해 코로나19라는 유례 없는 재난에도 과감하고 끈질긴 도전정신을 발휘했다”면서 “애항심과 열정, 협업의 가치를 바탕으로 국립심뇌혈관센터 설립과 국립아열대작물실증센터 유치를 이뤄냈다”고 지난해 성과를 돌아봤다.

유 군수는 “군민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한 국정 추진”을 강조했다.

방역대책본부와 호흡기 전담 클리닉을 연중 운영하고, 성인 예방접종 지원 확대와 예방접종의 민·관 협력체계를 견고하게 구성해 군민의 건강을 지킬 계획이다. 또 치매안심센터 운영과 군민 안전보험의 보장범위를 확대해 균형 있는 의료복지 실현시켜 나간다.

이를 기반으로 5만 군민과 함께 ‘새로운 장성’을 구축한다. ▲가치창출을 통한 지속 성장 ▲행

‘장성읍 하이패스 IC’ 설치 광주권 로컬푸드 직매장 건립 군민 안전보험 보장범위 확대

복 주는 복지·경제 ▲찾고 싶은 문화관광 ▲선도하는 부자농촌 ▲군민중심 안전·소통을 5대 핵심 가치로 삼아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하겠다는 계획이다. 지난해 275억원 규모를 발행해 지역 소상공인들에게 큰 도움이 됐던 ‘장성사랑상품권’은 올해 카드·모바일 상품권으로 확대 발행해 위축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더한다.

유 군수는 “장성 경제의 모세혈관이라 할 수 있는 골목상권을 살려내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맞춤형 지원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광주권 로컬푸드 직매장, 종자산업기반 등을 조성하고, 청년농업인과 영세 중소농업인을

2021년 주요 사업

- ▲국립심뇌혈관센터 설립 가속화
- ▲국립아열대실증센터 설립 지원
- ▲장성읍 하이패스IC·청운지하차도 개설
- ▲세계유산 필암서원 선비문화 세계화 육성
- ▲황룡강 관광 명소화 및 국가정원 지정
- ▲장성호 수변길 체류형 관광지 조성
- ▲광주로컬푸드직매장 건립 등 부자농촌 실현

위한 지원도 아끼지 않을 방침이다. 부자농촌 실현을 위한 분야별 정책들을 내실있게 추진해 도농 복합도시를 완성하고, 도시 못지 않은 인프라를 구축해 도시 경쟁력을 높여나간다.

장성군은 올해 교통 편의성을 높이고 비용을 절감하는 ‘장성읍 하이패스 IC’ 설치, 균형 발전을 이끌 ‘청운지하차도’ 개설 등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주민들의 관심이 큰 ‘고려시멘트 부지 개발로 기본 구상’과 ‘덕성행복마을 조성사업’은

관계기관과 긴밀하게 협의해 나간다. 가치의 재발견을 통해 장성의 대표 관광지로 거듭난 황룡강과 장성호는 장성의 미래 먹거리 마련을 위한 지원도 이어간다.

유 군수는 “궁극적인 목표는 모든 군민의 행복”이라며 “가족센터와 노인회관 건립에 박차를 가해 장성의 복지 위상을 한 단계 높이는 한편 대상포진 예방접종, 경로당 지원 등 맞춤형 복지정책 추진 역시 흔들림 없이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나아가, 단순히 ‘지원’에만 머무는 복지정책이 아닌 지역경제와 연동된 ‘복지형 성장모델’도 발굴·추진한다. 대표적 시책이 효도권이다. 만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한 효도권(아·미용 및 목욕권)은 외부로 유출되던 소비 수요를 지역 내로 집중시켜 복지 증진과 경기 회복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유 군수는 “새해는 그동안 진행한 민선 7기의 성과를 완성하고 ‘새로운 장성 10년’을 시작하는 해”라며 “엘로우시티 장성의 발전과 더 나은 미래를 위해 모든 열정을 바치겠다”고 다짐했다.

/장성=김용호 기자 yongho@kwangju.co.kr

강진군, 만감류 브랜드 ‘탐진향’ 상표 출원

한라봉·천혜향 같은 큰 감귤류

강진군이 지역에서 재배되는 큰 감귤류의 브랜드를 ‘탐진향’으로 짓고 특허청에 상표 등록했다.

강진군은 만감류 재배농민들이 사용하고 있는 자체 브랜드 ‘탐진향’의 상표 출원을 마쳤다고 14일 밝혔다.

만감류는 소비자들에게 익숙한 ‘한라봉’, ‘레드향’, ‘천혜향’과 같은 큰 감귤류를 통칭한다. 일반 감귤에 비해 늦게 수확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기존의 명칭들은 제주도 감귤협회 등에서 붙인 브랜드로 타지역 농민이 사용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강진군과 재배 농민들이 강진 만감류 자체 브랜드를 개발하기로 뜻을 모아 지난해 강진군의 옛 지명을 차용한 ‘탐진향’이라는 브랜드를 완성했다.

‘탐진향’은 강진군에서 생산하는 감귤류의 과일이나 가공식품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범위를 설정하고 앞으로 생산되는 만감류 포장박스에 브랜드를 표기해 판매할 방침이다.

브랜드 특허 권리는 강진군이 소유·관리할 예정이다.

김춘기 강진농업기술센터 소장은 “농민들과 함께 만든 브랜드를 법적인 제재없이 사용할 수 있게 됐다”며 “이번 상표등록을 통해 강진 만감류의 품질을 높이고 경쟁력을 강화하는 계기로 삼겠다”고 말했다.

/강진=남철희 기자 chou@kwangju.co.kr



강진군이 지역에서 재배되는 큰 감귤류의 브랜드를 ‘탐진향’으로 짓고 특허청에 상표 출원했다.

공공근로·지역공동체 일자리 화순군, 22일까지 207명 모집

화순군이 공공근로 사업 참여자 170명과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참여자 37명 등 총 207명을 모집한다.

공공근로·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은 취업 취약

계층을 대상으로 일자리를 제공해 저소득자 생활 안정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추진된다. 일자리 참여 희망자는 18일부터 22일까지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화순군은 올해 상반기(2~6월)에 11억2400만원을 투입해 5개월 동안 공공근로·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화순=배영재 기자 byj@kwangju.co.kr

나주시, 포스트코로나 대비 ‘강소농’ 집중 육성

다음달 2일까지 참여 경영체 모집

나주시가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비해 규모는 작지만 뛰어난 농업경영 역량과 잠재력을 갖춘 ‘강소농’을 집중 육성한다.

나주시는 2021년도 강소농 지원 사업 대상 농업경영체를 다음달 2일까지 모집한다고 14일 밝혔다.

대상은 경영개선 실천 의지가 있는 지역 내 중소농업인 또는 농업 경영체이다.

지원 대상에 선정되면 표준역량 진단을 통해 스스로 경영 혁신 목표를 설정해 달성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주요 교육 내용은 ‘모바일을 이용한 비대면 마케팅’, ‘경영개선 실천’, ‘농가 진단·분석을 통한 단계

적 현장컨설팅’, ‘경쟁력 향상을 위한 자율 모임체 활동 지원’, ‘농가경영 개선 실천노트 작성법’ 등이 다.

나주시농업기술센터는 코로나19 확산 상황을 고려해 소규모 대면 교육과 비대면 교육을 병행해 실시할 예정이다.

신청은 나주시청, 농업기술센터 누리집 공지사항에 게시된 사업신청서를 내려 받아 작성해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농업기술센터에 직접 방문·제출하면 된다.

김홍배 나주시농업기술센터 소장은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적용 가능한 최신 농업 경영기법을 집중적으로 교육해 농가의 경쟁력 향상과 소득 향상을 이끌어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나주=손영철 기자 ycsn@kwangju.co.kr

담양군, 코로나19 한시적 긴급복지 3월까지 연장

담양군은 코로나19로 인한 위기가구에 지원하는 한시적 긴급복지지원제도를 오는 3월31일까지 확대·연장 운영한다고 14일 밝혔다.

긴급복지지원금은 소득감소, 휴·폐업 등 위기상황에 처한 대상자에게 생계, 의료, 주거지원 등 복지 서비스를 신속히 지원하는 제도다.

지원 대상은 기존 재산 기준 1억100만원에서 1억7000만원 이하로 확대하고 금융재산 공제비율 기준 중위소득 65%에서 150%(1인 가구 7700만원 이하)로 상향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실업급여 수급자 등 다른 법령으로 지원받고 있는 사람은 제외된다.

담양군은 지난해 긴급복지지원제도를 통해 537가구 837명에게 4억4000여만원을 지원했다.

담양군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주민을 위해 기준을 완화했다”며 “생계유지가 어려워진 위기가구를 적극적으로 발굴해 지원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담양=노영찬 기자 nyc@kwangju.co.kr

NAVER 백산광화문작명소

T) 02-747-0242 / 02-738-1938
M) 010-5639-4088 / 010-3785-1935

名작 1작 1작 名작

광화문父子작명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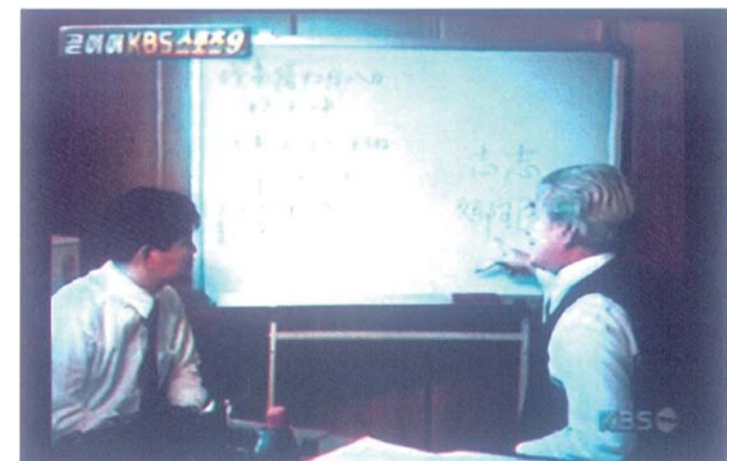
성스러운 탄생과 이름

세상은 좋은것도 많고 나쁜것도 많다. 이름도 좋은 이름 많고 나쁜 이름도 많다. 사람은 이름이 좋아야 평생 마음 먹은대로 하는일 마다 잘 되고 대복을 누린다. 나쁜 이름은 매사가 잘 될 것 같지만 하는일 마다 실패한다. 일시적으로 성공했다 해도 수포로 돌아간다. 좋은 작명가를 만나는 것은 행운이다. 끝으로 이름 값에 대한 말씀을 드립니다. 30만원이 기본이요. 많은 성의를 표시 하는 가정이 있고 형편에 따라 조금 저렴 하게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름은 곧 생명입니다. 저의 부자는 정성으로 대명작의 이름을 작명하여 전국 어디에나 보내드립니다. 나쁜이름과 상호는 새이름 (new name)으로 바꾸시면 전화위복이 됩니다.

작명가 白山 선생과 아들 서승재 박사 父子가 정성으로 작명한 大名작의 이름으로 평생 마음 먹은대로 大福을 받으세요



작명가 白山 작명가 서승재 박사 (백산2세)



한국 최고의 작명가로 KBS TV 9시 뉴스 방영당시 白山 선생



외국인과 교포가 많이 찾는 白山 선생 (MBC TV 방영)

*코로나로 인해서 전국민 비대면 작명을 환영 합니다.

주소 : 서울 종로구 내수동 74번지 광화문시대빌딩 715호 (서울정부종합청사와 외교부 중간 광화문시대) 지하철 3호선 경복궁역 6번출구 5호선 광화문역 1번출구